

‘백투더 목포’…AI로 도시의 시간과 기억을 잇다

뉴미디어 홍보 활용…영산호·갓바위 등 과거·현재 모습 함께 소개
기록과 기억 전달…세대 간 공감 이끌어내며 조회수 빠르게 확산

목포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목포시는 행정 홍보를 넘어 도시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공공 뉴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최근 ‘백투더목포’라는 제목의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 콘텐츠는 과거 기록 사진에 AI 기술을 적용해 움직임을 더하고 같은 장소의 현재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정지된 과거와 흐르는 현재를 한 화면에 담아 도시 변화의 시

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1·2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누적 조회수 18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목포 거리 모습과 2025년 현재의 동일한 장소가 나란히 담겼다. 영산호 하굿둑, 갓바위 해수욕장 등 한 때 시민들의 일상 공간이었던 장소들도 과거와 현재 모습이 함께 소개된다.

최근 공개된 콘텐츠에는 1990년대 목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했던 공간들도 포함됐다.



목포시가 AI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나섰다. ‘백투더목포’ 영상. <목포시 제공>

동부시장, 목포시민회관과 중앙공설시장, 옛 도깨비시장 일대는 시민들의 삶이 오갔던 공간으로 현재의 변화된 모습과 대비된다. 시민회관 인근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던 장소로 일상 공간이 지난 역사적 맥락도 함께 담겼다.

북항 일대와 도심 풍경의 변화도 주요 소재다. 유달산에서 바라본 목포 시가지, 고하도 용마리, 옛 대반동 해수욕장 등은 개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도시 확장의 흐름을 보여준다.

도심 속 평범한 공간들로 콘텐츠에 담겼다. 시내 차 없는 거리, 근대역사관 1관 앞 도로, 유달산 달성공원 주차장, 9호광장(옛 연동 건널목), 3호광장 사거리 등은 시민들의 이동 경로이자 일상이 축적된 장소들이다.

콘텐츠 제작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과거 사진에 움직임을 부여하고, 현재 장면은 같은 화각으로 촬영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기술 자체보다는 기록과 기

억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영상은 접한 한 시민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지역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쉽다”라며 “때론 익숙한 공간이 등장해 개인적 기억을 떠올리게 돼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목포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목포시 뉴미디어팀은 앞으로도 격주 단위로 후속 영상을 제작해 지역의 변화와 기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목포시 뉴미디어팀 이봉주 팀장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아날로그 감성을 살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라며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여주는 구성에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영광군 ‘전남형 기본소득’ 효과…설 대목 골목상권 ‘온기’

1인당 50만원 영광사랑카드 지급
내일 굴비골시장 등서 장보기 행사

영광군이 전군민에게 지급한 ‘전남형 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이번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6월 말까지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설 명절 성수품 구매에 활용하면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카드 결제가 크게 늘었고 소비자들이 평소보다 한 두 개 더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 신청 기한도 기준 6일에서 20일까지 연장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광군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13일 굴비골영광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연다.

참가자들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제수 용품과 특산품을 구매해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환급행사도 함께 마



장세일 영광군수 등이 영광터미널 시장을 찾아 ‘설 명절 전통시장서 장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련했다.

12~13일 전통시장 2곳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영광사랑상품권 1만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판로 확대도 병행한다. 영광군은 공식 쇼핑몰 ‘영광몰’에서 20일까지 지역 농수축산물을 최대 35% 할인하는 설맞이 특별전을 진행해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노린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환경행사와 온라인 할인전까지 연계한 정책은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번 설 명절 민생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용삼 기자 2yong3@kwangju.co.kr

고향사랑기부 어워드

영암군 ‘협력성장상’

인구 대비 모금액 괄목 성과

영암군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어워드’에서 군 부문 최우수상인 ‘협력성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협력성장상은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유치 ▲경쟁력 높은 담례품 제공 체계 구축 ▲주민 생활 밀착형 기금사업 등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영암군은 인구 대비 연간 총모금액, 모금 건수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리며 지속 가능한 모금을 정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담례품 구성과 안정적 공급 관리 체계로 기부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부 후 감사 메시지 발송으로 재기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시골 마을을 찾아가는 기찬밸래방·기찬장터 운영, 30년 만의 소아청소년과 재개원, 운영 지원 등 전국 기부자들의 기부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유치, 담례품 공급 체계 정비, 공감도 높은 사회적 가치 기금사업으로 군민과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였다”라며 “이번 상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기부를 꾸준히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군 ‘농업기계 안전교육관’ 개관…농기계 주행장도 추가 조성

4월부터 9개 과정 현장 실습 교육

영암군이 ‘농업기계 안전교육관’을 개관했다. 교육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예산 등으로 마련했다.

교육 실습동과 농기계 보관창고, 드론 및 첨단 농기계 전시실, 정비 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이곳에선 안전 영농을 위한 현장 중심 체험형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실습·정비 교육 공간 확보로 현장 적응력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게 군의 설명이다.

교육관에선 오는 4월부터 소형 농기계 정비 요령, 용접 실무 등 9개 교과과정을 편성해 소그룹 밀착형 현장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한다.

교育관 앞마당에는 농기계 주행장을 추가 조성 중이어서 상반기 중 농기계 조작 요령과 도로 주행



우승희 영암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농업기계 안전교육관 개관식이 열렸다. <영암군 제공>

운전 능력 강화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관에서 농작업 안전 사용 교육은 물론, 농촌 생활 기술 교

육과 자가 정비 교육 등을 진행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 중 적벽시와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

해양·관광 등 분야 협력 모색

완도군은 최근 중국 후베이성 적벽시와 우호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적벽시와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벽시는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통 제조업과 신성장 에너지, 스마트 제조 산업 등이 발전한 곳이다.

양측은 앞으로 행정 교류·협력,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산업·경제 분야 협력, 기업인·체육인·청소년 등 방문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해양치유와 웰니스 관광·수산업 등 완도가 지난해 접두사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적벽시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군은 중국 대표 ICT 기업인 텐센트(Tencent) 관계자들과 만나 디지털 콘텐츠, 스마트 웰니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h@

목포시립도서관 전시갤러리, 박은미 개인전

28일까지 ‘2월의 향기’ 전

목포시립도서관 전시갤러리에서 오는 28일까지 ‘박은미 개인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조명한다. 만개한 순간 뒤에 찾아오는 덧없음은 꽃의 유한함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며, 유한기에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작품 속 꽃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표현됐으며, 관람객이 유한함 속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목포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며 꽃의 생명력과 자연의 질서를 담아낸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색의 시간을 선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2월의 향기 포스터.

해남군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분석 키트 개발

신속·정확한 진단…특허출원

해남군이 고구마 주요 병해인 덩이줄기썩음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병원균에 대한 종 특이성이 높아 신속·정확·간편한 진단이 가능하다.

덩이줄기썩음병 검출에 필요한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등 핵심 구성 요소를 포함한 분석 키트는 군농업기술센터와 마이크로진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이를 이용하면 토양이나 고구마 시료에서 병원균 존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 덩이줄기썩음병은 고온습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이 크고 별발 후에는 방제가 어려운 병해로 알려져 있다.

군은 덩이줄기썩음병 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토양 사전진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군은 이번 기술 개발로 병 발생 이전 예방 조치가 가능해져 농가 피해 감소와 고구마 품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특허출원은 군의 농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고구마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